

## 10주-2회 차

- 형태주의 심리학: 형성(2), 전파, 평가

10-2강 file.1

안녕하십니까. 심리학사 10주 2회 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주 2회 차 강의는 1회 차 강의에서 얘기한 형태주의 심리학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초기에 영향을 주었던 주요 학자 두 사람과 형태주의 심리학이 형성 된 이후에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그 다음에 형태주의 심리학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10주-2회차 학습목차

- 7.2. Wolfgang Köhler
- 7.3. Kurt Koffka
- 7.4. 형태주의 심리학의 발전, 전파
- 7.5. Kurt Lewin
- 7.6. Kurt Goldstein
- 7.7. Rudolf Arnheim
- 8. 기타 형태주의 심리학자들
  - 게슈탈트 심리치료
- 9. 형태심리학의 원리들
- 10. 형태주의 심리학: 종합

10-2강 file.2

10주 2회 차 학습 목차를 보시면 볼프강 쾰러, 쿠르트 코프카의 두 사람, 그러니까 베르트하이머와 같이 형태 심리학을 출발시킨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형태심리학의 발전과 전파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을 살펴보고 기타 형태주의 심리학자들을 언급하고, 형태주의 심리학의 원리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형태주의 심리학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0주-2회차 학습 목표

- 1. Wolfgang Köhler, Kurt Koffka 가 형태심리학의 형성과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가를 파악한다
- 2. Kurt Lewin의 이론이 심리학의 발전에 준 영향을 파악한다
- 3. 기타 다른 형태주의 심리학자들의 공헌을 간략히 파악한다
- 4. 게슈탈트심리치료는 형태주의 심리학의 핵심과는 관계없음을 파악한다
- 5. 형태주의 심리학이 전반적으로 심리학에 기여한 바, 문제점 등을 파악한다.

10-2장 file.3

10주 2회 차 학습 목표는 쾰러(W. Köhler) 코프카(K. Koffka)가 형태 심리학의 형성과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가를 파악하고 쿠르트 레빈(K. Lewin)의 이론이 심리학의 발전에 준 영향을 파악하고, 기타 다른 형태주의 심리학자들의 공헌을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게슈탈트 심리치료는 형태주의 심리학과 관계가 없음을 인식을 하고 마지막으로 형태주의 심리학이 전반적으로 기여한 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 7.2. Wolfgang Kohler (1887-1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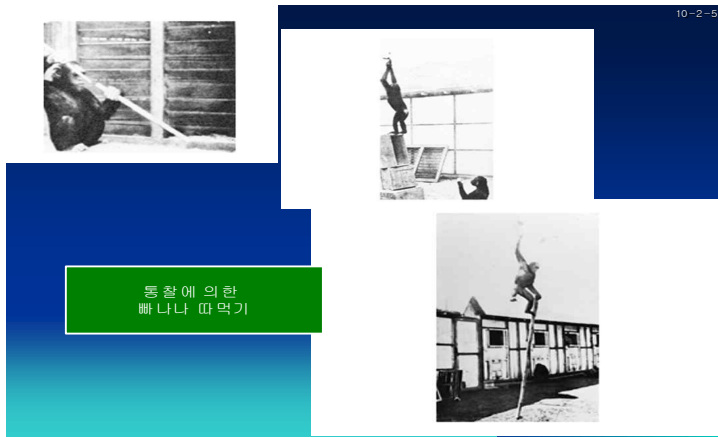


- Estonia 출신
- Stumpf 제자. Max Planck와 공부
- 1913에 Tenerife 군도에서 유인원 연구
  - 자극 상황(array)이 전체가 재구성되어서 문제 해결되는 통찰적 사고(학습) → 그림 참고
- 초기에 물리학에서의 field 이론에 관심
- 1933 반-나치 글 공표
- 1935 미국으로 이주 : Swarthmore 대학

10-2장 file.4

볼프강 쾰러를 살펴보면 그는 독일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와서 심리학자인 슈툼프(Stumpf)의 제자로서 그 유명한 물리학자인 막스 플랑크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가 베르트하이머를 만난 것이 형태주의 심리학으로 옮겨지게 된 기본적인 동기적 사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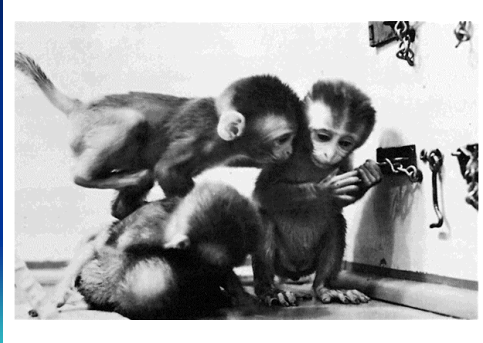
기도 했는데, 켈러의 가장 큰 공헌은 1913년도에 Tenerife군도에 가서 침팬지들을 연구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그런 경험을 해서 이론이 발전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2장 file.5

그 다음 슬라이드가 [통찰]에 의한 바나나 따먹기로 켈러가 아프리카 섬에서 자기 연구 조수와 함께 발견한 현상입니다. 침팬지에게 막대를 주고 천장에 바나나가 매달려 있으면 침팬지가 대나무 같은 막대를 연결해서 바나나를 따먹는다든지, 아니면 중간 그림처럼 상자를 여러 개를 쌓아놓고 바나나를 따먹는다든지, 아니면 오른쪽 아래그림처럼 긴 장대 위에서 올라가서 바나나를 따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왓슨의 행동주의심리학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극-반응] 연결을 여러 번의 반복시행 학습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어떤 [통찰]이 와서 문제 해결을 하고 바나나를 따먹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학습이 자극-반응을 반복적으로 [시행착오]적으로 경험하고 보상을 받고 그래야 학습 되는 게 아니라, 한 시행에 완전히 학습 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행동주의심리학을 그 근본 토대부터 공격하는 아주 실증적인 강력한 사례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학습을 넘어서 사고 쪽으로 넘어가면 ‘침팬지도 사고를 한다.’, ‘침팬지도 지능이 있다’고 하여 침팬지도 문제 상황에 들어서서 인간처럼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해결적인 사고를 한다는 [사고 심리학]이 생겨나게끔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2장 file.6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이 후에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것인데 침팬지들이 우리에게 간혀있지만, 자물쇠를 열어서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침팬지들은 문제 해결을 하는데, 행동주의심리학의 [자극-반응] 연결 학습을 통해서가 아닌 [통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인 것이 쾰러의 공헌입니다.

## 나치에 대항한 글

- One Man Against the Nazis—; Wolfgang Köhler
- *Mary Henle*
- “I feel obligated to announce that...the Psychological Institute at Berlin...does not exist any more.... The government has decided in May to dismiss all the assistants who were trained by me and in June...they were suddenly forbidden to continue their work and their teaching....
- I had expressly stated orally and in official documents that I could not possibly remain as director without the help of my young friends and since this is a clear case of their modern brutality...the measure is morally equivalent to my own dismissal too.” (Köhler, 1935)

10-2장 file.7

그 다음 슬라이드는 Koehler가 나치에 대항하여 쓴 글인데, 이건 그냥 각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볼프강 쾰러는 금발의 전통적인 아리안 계통의 유럽인이었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옹호하면서 나치에 반발하는 글을 썼습니다.)

- 초기에 물리학에서의 field 이론에 관심
- **형태주의 이론을 물리학, 심리-생리학적 입장에서 전개**
- 인간의 마음은 유기체의 법칙적인 표현, 따라서 물질세계의 기본 원리인 장, 양자물리학의 법칙과 관련됨
- 1차대전 중에 Canary 군도에서 동물실험; Thorndike의 시행착오 학습 이론 검증.
- 통찰학습, 통찰적 사고 발견:
  - The Mentality of Apes, 1917, 1924.
- 뇌에서 **direct current theory; isomorph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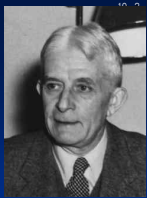
## 10-2장 file.8

그 다음 슬라이드(9)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는데 쾨러는 물리학자들과 접촉하면서 물리학에서의 Field(장) 이론에 관심을 갖게 되고 형태주의 심리학 이론을 물리학하고 연결해서 설명하려고 하였고, 그 다음에 당시의 생리학, - 오늘날로 말하면 신경과학이죠. - 그런 학자들과 접촉하면서부터, 지각이 일어나는 심리현상을 신경과학적인 신경생리학적 입장에서 설명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내놓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유기체의 법칙적인 표현이고 따라서 물질세계의 기본 원리인 Field(장), 그리고 양자물리학의 법칙이 인간의 마음에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은 오늘날에도 유명한 물리학자들이 이러한 입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차대전 중에 Tenerife군도에서 동물 실험했다는 것과 통찰학습, 통찰적 사고를 발견했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는 또한 유인원의 지적능력(Mentality)에 관한 책을 1917년에 벌써 썼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생리학적 입장에서 뇌에서 자극이 제시되면 그와 유사한 모양의 신경 흥분이 일어난다는 이형동질(Isomorphism)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 Psychophysical isomorphism
  - 형태심리학의 주요 원리로 계속 남음
- Force의 개념
  - 어떻게 무엇이 시각 형태를 비롯하여 마음의 내용을 자동적으로 조직하게 하는가?
  - force :
    - 비유: 자석과 쇠가루: 자석힘; 자기장
  - > 좋은 형태로의 역동적 움직임, 힘
  - 이 힘은 무엇? 뇌의 신경과정 메커니즘
- Koehler는 '형태심리학' 출간으로 후반기의 형태심리학이 구성주의나 행동주의와는 달리 뇌신경 과정에 기반한 체계적 이론들로 남게 함



그 다음에 Koehler가 제시한 [Psychophysical Isomorphism]이 형태심리학의 주요 원리로 계속 남는데, 이것은 뒤에 가서 설명되듯이 물리학에서 Force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는 어떻게 무엇이 시각 형태를 비롯하여 마음의 내용을 자동적으로 조직하게 하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자석실험을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쇳가루를 종이 위에다 올려놓고 보면 쇳가루는 그냥 천지사방으로 흩어져 있죠, 아무런 조직화된 구조가 없죠. 그런데 종이 밑에 자석을 갖다 대면 쇳가루 들이 바짝 일어서면서 일정한 형태로 모아지는, 조직화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심리현상에서도 신경적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일어나면서 날개 요소를 넘어선 전체를 지각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난다는 그런 입장을 켈러가 얘기했습니다. 또한 켈러는 형태심리학 책을 출간을 해서 후반기 형태심리학이 구성주의나 행동주의심리학과는 달리 뇌의 신경 생리과정에 기반한 체계적 이론 틀로 남게 했습니다.



isomorphism

- 예: 삼각자를 보면 삼각형으로 지각함
  - ?? 왜??
  - 삼각자 자극이 삼각자와 같은 (동형; iso) 모양으로 뇌에서 세포들을 활성화 시킴.
  - 그 활성화된 세포들의 위치 모양이 삼각자와 같은 모양을 그리며 전기적 흥분이 일어난다는 생각
  - 그러면 자극과 똑같은 모양으로 뇌세포가 활성화?
  - ← NO! 다른 모양이나 기능적으로 유사: 지도 유추

거기서 Isomorphism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걸 [동형이성] 또는 [동형이질] 이라고 하는데 - 번역이 조금씩 다른데, 책에 나온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삼각자를 보면 어떻게 해서 삼각형으로 지각하느냐 했을 때, 삼각자 자극이 삼각자와 같은 모양으로 뇌에서 세포들을 활성화 시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밖에 있는 자극의 모양과 같은 모양이(Iso-morph) 뇌 세포들에서 활성화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Isomorphism의 기본 개념인데, 그러면 자극과 똑같은 모양으로 뇌세포가 활성화 되느냐, 즉 바깥에서 10cm로 된 이등변 삼각형이 있으면, 뇌에서도 똑같이 10cm가 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다른 모양이나 기능적으로 유사한 그런 모양으로 뇌에서 세포들이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지도를 생각해보시면 한국지도나, 서울지도의 지도 자체가 실제 현실과 똑같지는 않죠. 어떤 관계성은 있지만 똑같지는 않은 것처럼, 외부 자극과 신경세포의 활성화 관계 형태는 같다는 것이 동형이질의 기본 개념이지요.

10-2-11

- Wolfgang Köhler (1959). Gestalt Psychology Today [1]; First published in *American Psychologist*, 14, 727-734
- <http://psy.ed.asu.edu/~classics/Kohler/today.htm>
- <http://evans-experientialism.freewebspace.com/kohler02.htm>
- 생애와 업적: by U. Neisser
- <http://stills.nap.edu/html/biomems/wkohler.html>

10-2장 file.11

그 다음 슬라이드 (11)에 쾨러의 업적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이트는 각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2-12

### 7.3. Kurt Koffka (1886-1941)



- Berlin대학, Stumpf 제자
- Frankfurt -> Giessen -> Smith College
- 형태주의 심리학의 대변인격
- 형태주의 심리학을 체계화함 (1차)
- Köhler보다는 더 실험중심적
- Kurt Koffka (1922); *Psychological Bulletin*, 19, 531-585.
- *Perception: An introduction to the Gestalt-theorie*
- <http://psychclassics.yorku.ca/Koffka/Perception/perception.htm>

10-2장 file.12

그 다음에 쿠르트 코프카에 대해서 나오는데, 슈툼프의 제자였고, 프랑크푸르트대, 기센대, 스미스 컬리지 등으로 자리를 옮겼고, 형태주의 심리학의 대변인 격으로 나중에 형태주의 심리학을 출발 시킨 것은 아니지만 형태주의 3인방의 한사람으로써 활동을 하면서 형태주

의 심리학을 이론적으로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밖으로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윌러는 물리학의 장 이론이라든지 신경생리학의 이론을 연결해서 쓰고 실험은 침팬지 실험같은 것을 했지만, 코프카는 약간 분트식의 실험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상을 보는 관점은 분트와는 다른 형태주의 심리학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링크에 코프카의 업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코프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코프카가 한 일이 형태주의 심리학을 조직화, 체계화 한 것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 형태 심리학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코프카가 얘기 한 것의 대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고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2-13

## Koffka

- - 형태조직화 원리:
- “*Principles of Gestalt Psychology*” (1935) publ. Lund Humphries, London. **Chapter I. Why Psychology?**
- <http://www.marxists.org/reference/subject/philosophy/works/ge/koffka.htm>
- **Perception: An introduction to the *Gestalt-theorie***
- **Kurt Koffka (1922)** :*Psychological Bulletin*, 19, 531-585.
- <http://psychclassics.yorku.ca/Koffka/Perception/perception.htm>
- Links:
  - <http://elvers.stjoe.udayton.edu/history/people/Koffka.html>

10-2강 file.13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쿠르트 코프카에 대한 사이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2-14

## 7.4.형태주의 심리학의 발전, 전파

- Kurt Lewin:
  - Field theory: life space 개념 : 성격심리, 사회심리, 동기심리
- R. Arnheim:
  - 시각예술심리학
- W. Wolff:
  - 성격심리학 -> F. Allport
- Helson
  - 순응수준 이론
- Barker -> Gestalt theory + Freudian -> Gestalt therapy
  - 정통에서 벗어난 접근,
  - 형태주의 심리학자들은 비판

10-2강 file.14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형태주의 심리학의 발전과 전파]에서 보면, 첫 번째로 형태주의 심리학의 발전과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쿠르트 레빈입니다. 쿠르트 레빈은 베를린에서 베르타이며, 켈러, 코프카 등과 같이 일했던 젊은 학자로서 주로 미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여러 개념들을 얘기를 했는데,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지요. 그 다음에 루돌프 아른하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시각 예술 심리학을 출발시켜서 시각 디자인과 예술 심리학, 미학, 여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프는 성격 심리학의 개념을 제시해서 지그문트 프로이트, 올포트 등에게 영향을 줬고, 해리 헬슨이라는 사람은 순응수준 이론을 제시를 해서 초기의 실험 심리학의 감각과 지각 심리학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커라는 사람은 게슈탈트 이론과 프로이트 입장을 연결해서 게슈탈트치료라는 것을 출발시켰는데, 이것은 정통 형태주의 심리학에서 벗어난 접근이기 때문에 형태주의 심리학 전통에서는 게슈탈트 치료라는 것을 비판하고 이것을 하는 사람들과 연결하려 하지 않고 따돌리고 했습니다.

## 7.5. Kurt Lewin (1890-1947)



- 출생: Mogilno, Germany.
- PhD: Berlin 대학, 지도교수 Stumpf.
- Stanford & Cornell 방문(1932), Iowa 대학교수 (1935)
- 1944: 설립 & 소장: the Research Center for Group Dynamics at MIT.
- 위상이론(topological theory)
  - : 인간 역동을 생활공간 지도 형태로 표현
- 생활공간:
  - 개인의 욕구, 욕망, 목표 + 이 변인들의 방향/강도를 나타내는 벡터 (화살표) => 이 모두가 Gestalt로 작용.
- → 사회심리학에 영향 줌
  - Muzafer Sherif, Solomon Asch, and Leon Festinger
- <http://www.ship.edu/~caboeree/gestalt.html>

10-2장 file.15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쿠르트 레빈에 대한 소개를 보면 베를린 대학에서 슈툼프 교수의 지도를 받았고, 베를린 대학 심리학 연구소에서 베르트하이머, 켈러, 코프카 등과 연구하다가 나중에 미국에 건너가서 아이오와 대학의 대학 교수가 되고 미국에서 집단역동(Group Dynamics) 분야를 개척하였으며 위상이론(Topological theory)도 세웠습니다. 레빈의 위상이론은 즉 인간 행동의 다이나믹한 측면을 생활공간지도 형태로 표현하고 그걸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쿠르트 레빈의 개념 중에서 중요한 것이 위상이론 내에서 생활공간이라는 것인데 개인의 욕구, 욕망, 목표 하고 그 다음에 이 변인들의 방향, 강도를 나타내는 벡터, 화살표가 들어갑니다. 이 모두가 종합되어서 게슈탈트로 작용하는데 한 사람의 생활공간이 있고 그 생활

공간에는 그 개인(Person; P)의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 요소 (Environment; E)가 있고 이 P와 E의 요소들이 종합되어서 전체적인 게슈탈트 형태, 구조가 생겨나면서 그것에 의해 행동이 결정된다 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Kurt Lewin


- 교재에 다른 학자에 비하여 자세하게 나와 있음
- 교재 내용 참고: 335-348
  - He received his PhD from the University of Berlin under military service, he returned to Berlin where he worked with Wertheimer, Koffka, and Köhler.
- He went to the U.S. as a guest lecturer at Stanford and Cornell, and took a position at the University of Iowa in 1935.
- In 1944, he created and directed the Research Center for Group Dynamics at MIT.
- Lewin created a **topological** theory that expressed human dynamics in the form of a **map** representing a person's **life space**. The map is patterned with one's needs, desires, and goal, and **vectors** or arrows indicated the directions and strengths of these forces -- all operating as a Gestalt. → 사회심리학에 큰 영향
- → Muzafer Sherif, Solomon Asch, and Leon Festinger
- <http://www.ship.edu/~cgboeree/gestalt.html>



10-2장 file.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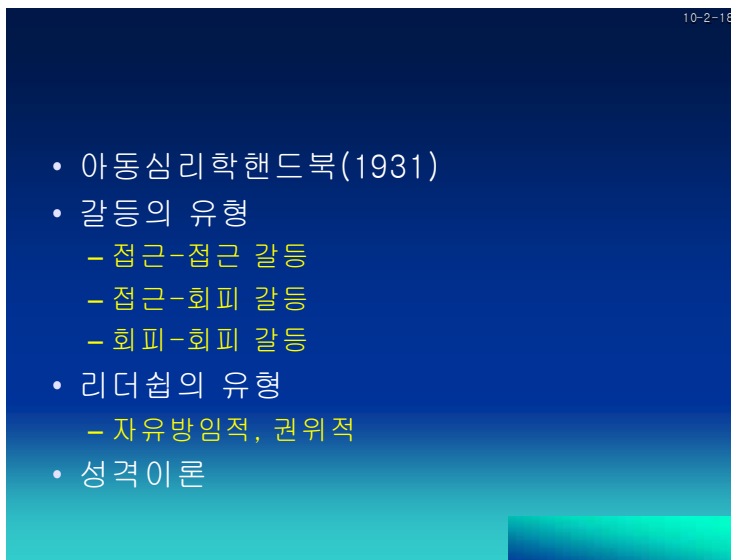
교재에, 다른 학자에 비해서 쿠르트 레빈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35페이지에서 350페이지까지 그 사람의 개인적 삶이라든지 심리학에 기여한 바 등이 나와 있습니다.

- Heider 등과 저술: *Principles of Topical Psychology*
- field theory.
  - The field theory is the "proposition that human behavior is the function of both the person and the environment: expressed in symbolic terms,  $B = f(P, E)$ ."
  - This means that one's behavior is related both to one'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o the social situation in which one finds oneself.
  - we live in a psychological reality or life space that includes not only those parts of our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 that are important to us but also imagined states that do not currently exist".
- 당시의 심리학자들은 행동주의를 따르지 않았고 정신분석 이론을 믿어서 인간행동이 내적 무의식적 충동이라고 봄  
← Lewin 이 이에 반발함
- Lewin: 동기 = goal-directed forces.



10-2장 file.17

하이더 등과 연결해서 ‘위상심리학의 원리(Principles of Topological Psychology)’라는 책을 저작을 했는데, (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서 Topical 이라고 된 부분은 타자오류입니다.) 슬라이드에서 영문으로 설명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한글로 되어있는 부분에 당시 심리학에는 상당수의 심리학 연구자들이 행동주의심리학을 따르지 않고 정신분석이론을 믿어서 인간 행동이 내적 무의식 충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레빈은 그것에 반발해서 무의식적 충동에 의해서 인간행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인간 나름대로 동기가 생겨나고 이 동기라는 것이 목표지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그런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10-2장 file.18

그 다음에 쿠르트 레빈은 여러 가지 공헌을 하였는데, 아동심리학 핸드북도 처음 만들었고 삶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형들 한 개인 P와 환경 E의 접근-접근, 접근-회피 이런 식의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갈등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해나가는지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쿠르트 레빈의 다른 것은 리더십에 대한 이론을 개척했다고 볼 수 있겠고, 쿠르트 레빈의 생활 공간에 대한 이론은 성격 이론으로 넘어가서 영향을 주었습니다.

- => 인간행동의 field research: 자연 상황에서의 상황변인 조작
- → social cognition, social motivation, and group processes
- → action research. 이론: 인간행위 = f (환경요인 \* 심리요인)
- ←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듯이 내적충동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님
- → 장이론 → 강한 영향 → 현대사회심리학
- → 사회심리 현상을 실험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것은 큰 기여임
- → 리더쉽, 집단역동 연구

10-2장 file.19

레빈은 인간행동을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연구하고 자연 상황에서 일어난 상황 변인 조작을 하는데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현장 상황에서 사회적 인지, 사회적 동기, 집단 압력 이런 것을 다루었고, 이러한 것이 현대 사회심리학에 영향을 주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심리학의 출발이 쿠르트 레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상당히 볼 수 있습니다.

### 교재에 자세히 설명된 Lewin의 공헌 내용

- 1. 장(field) 이론
- 2. Zeigarnik 효과
- 3. 발달심리학과 형태심리학의 연결
- 4. 사회심리학과 형태심리학의 연결
  - 현대사회심리학의 창시자
  - 리더쉽 연구
  - 집단 활동 연구
- 5. Lewin에 대한 평가

10-2장 file.20

교재에 자세히 설명된 레빈의 공헌 내용이 12345번으로 슬라이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상세하게 설명이 돼있는데, 장이론, Zeigarnik 효과, 발달 심리학과 형태 심리학의 연결, 사회 심리학과 형태 심리학의 연결, 여기서는 리더쉽과 집단 활동 연구가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레빈에 대한 평가가 교재에 나와 있으니 교재의 레빈에 관한 절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10-2-21

- Gestalt Psychology Today [1]
- Wolfgang Köhler (1959)
- First published in *American Psychologist*, 14, 727-734
- <http://psy.ed.asu.edu/~classics/Kohler/today.htm>

10-2장 file.21

그 다음 슬라이드(#21)는 그냥 참고용이니까 넘어가고요.

## 7.6. Kurt Goldstein



- 1875-1965
- K. Wernicke의 제자
- 뇌의 기능에 대한 전체론적, 형태주의적 이론 전개 (뇌손상 환자 연구 기초함)
- 전체론을 유기체 신체 전체로 확장함
- 인간에게는 단 하나의 추동이 있음:
  - **self-actualization**. (처음으로 이 용어 제시)
- → 성격이론에 영향; 심리치료자들에 영향
  - [Gordon Allport](#) : 성격이론가
  - [Carl Rogers](#) : 상담이론가
  - [Abraham Maslow](#) : 인본주의 심리학 창시자

10-2장 file.22

그 다음에 Kurt Goldstein, 영어로 하면 골드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 시기의 형태 심리학자로 활동한 사람인데 1965년까지 활동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어중추를 발견한 베르니케의 제자로서 뇌의 기능에 대한 전체론적인 형태주의적 이론을 전개하고 뇌손상 환자 연구에 바탕을 해서 전체론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Self Actualization'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썼고, 전체론, 유기체 그러니까 인간이건 동물이건 전체적으로 봐야한다는 그

런 입장을 전개시켜서 성격이론가인 올포트나 상담이론가인 로저스나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시자인 매슬로우에게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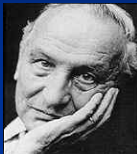

- Golstein developed a holistic view of brain function, based on research that showed that people with brain damage learned to use other parts of their brains in compensation. He extended his holism to the entire organism, and postulated that there was only one drive in human functioning, and coined the term **self-actualization**. Self-preservation, the usual postulated central motive, he said, is actually pathological!
- Goldstein and his idea of self-actualization influence quite a few young personality theorists and therapists. Among them would be [Gordon Allport](#), [Carl Rogers](#), and [Abraham Maslow](#), founders of the American humanistic psychology movement.

10-2장 file.23

그 다음 슬라이드(#23)에 영문으로 골드슈타인이 한 공헌 내용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 7.7. Rudolf Arnheim

- 생애:  
<http://pages.slc.edu/~psychology/biographies/arnheim/>
- **Art and Visual Perception: A Psychology of the Creative Eye (1951-1954)**
- 500-page book,  
  
to "narrow the gap between scientific and artistic knowledge:  
to use scientific finding to better understand the arts while preserving the equally pivotal role of subjectivity, intuition, and self-expression"



10-2장 file.24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루돌프 아른하임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영문으로 소개 나온 것은 각자가 사이트를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시고

- At the University of Berlin, Arnheim's primary interest was in psychology, which was regarded at the time as a branch of philosophy.
- So he ended up with majors in two subjects, psychology and philosophy, and two minors, in the histories of art and music.
- Among the distinguished faculty there were some of the century's finest physicists, including Albert Einstein and Max Planck, and, in the area of psychology, two of the founders of gestalt psychology, Max Wertheimer and Wolfgang Köhler.

10-2장 file.25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영문으로 나온 것도 각자 한번 살펴보고

- Ultimately, through this book Rudolf Arnheim provides his greatest contribution to the fields of psychology and art -- balancing the scientific rationale of psychology with the reality of art.
- Completely revised in 1974 and translated into over fourteen languages, the tome has sold steadily since its initial publication and has become one of the most widely read and influential art books of the century
- Entropy and art.
- <http://acnet.pratt.edu/~arch543p/readings/Arnheim.html#1.2>

10-2장 file.26

그 다음 슬라이드(#26)에서 사이트에 나온 영문 내용도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예술심리학자 아른하임 교수 타계

- 예술, 미학, 시각심리학을 연결하는데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였던 아른하임 교수가 타계하였다는 워싱턴포스트 기사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7/06/12/AR2007061201957.html?nav=hcmodule>

- Rudolf Arnheim: Studied Art-Perception Links

By Adam Bernsteins  
Wednesday, June 13, 2007; Page B06

< 관련자료 >

추도사  
by Marvin Eisenberg  
<http://post.thing.net/node/1607>

10-2강 file.27

그 다음 예술 심리학자 아른하임 교수가 지난 6월에 타계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던 내용인데요. 워싱턴 포스트 지가 예술 심리학자 아른하임 교수의 타계를 큰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추도사도 있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 국내 책  
루돌프 아른하임 지음

시각적 사고. 김정오 교수(서울대 심리학과 옮김). 이화여대출판부  
<http://www.ewhappress.com/subpage.asp?code=search&subp=01&cate=&mode=&gbn=viewok&ps=10&sp=all&sw=%BD%C3%B0%A2%C0%FB+%BB%E7%B0%ED&qp=1&ix=257>

예술심리학. 김재은 교수(전 이화여대 교육심리학과 교수 옮김). 이화여대출판부  
<http://www.ewhappress.com/subpage.asp?code=search&subp=01&cate=&mode=&gbn=viewok&ps=10&sp=all&sw=%BE%C6%B8%A5%C7%CF%CD%D3&qp=1&ix=259>

예술심리학 일반: Ellen Winner지음, 이모영 역. 학지사. 2004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php?bid=1273262](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php?bid=1273262)

국내 동아닷컴 기사  
<http://www.gongga.com/itbin/moeum?n=dstory%l389&a=v&l=3&id=200102270310>

10-2강 file.28

국내에서 아른하임이 쓴 책이 몇 권 번역이 됐는데, [시각적 사고]라고 서울대 심리학과 김정오 선생님이 옮긴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대 교육심리학과 교수이셨던 김재은 교수님이 옛날에 번역한 [예술 심리학]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모영 교수가 번역한 [예술 심리학] 책이 있고, 국내 동아닷컴에서 예술심리학을 기사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 아른하임의 세계:  
<http://www.bobolinkbooks.com/Arnheim/Home.html>
- 갤러리  
<http://dev.surface-design.org/gallery.php>  
<http://dev.surface-design.org/gallery.php?cat=Mind%20and%20Body%20Workshops%202007>
- 아른하임의 주요 생각 - 인용글  
<http://www.bobolinkbooks.com/Arnheim/Quotations.html>
- 아른하임의 예술심리학 개관 (영문) -유종호  
[http://www.creative-wisdom.com/photography/photo\\_essay/dynamic.html](http://www.creative-wisdom.com/photography/photo_essay/dynamic.html)
- 온라인 링크들  
<http://www.bobolinkbooks.com/Arnheim/Links.html>  
2007/06/15(11:37) from 59.9.229.234

## 10-2장 file.29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아른하임과 관련된 여러 갤러리, 아른하임의 주요 생각, 아른하임의 예술심리학 개관, 온라인 링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각 디자인, 예술심리학, 미학, 지각 심리학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사이트를 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아른하임 지음; “시각적 사고”

- 김정오 옮김 1982년 초판 494쪽, 이화여대출판부.  
하버드대학 예술심리학 교수 루돌프 아른하임의 미술의 형태와 기능에 관한 심리학적 탐구를 논한다. 그는 "모든 사고는 미술 또는 어떠한 시각적 경험과 관련된 사고에서도 근본적으로 지각적 성질을 내포하며 그들을 구분되어 오던 시각과 사고, 지각과 추리 간의 분리를 상당한 오해를 초래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그는 시각의 기본 과정들 중 추리의 전형적 기제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 주며, 과학의 사민주형에 따른 심상 과정을 기술할 뿐 아니라 미술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문제해결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목 차] 1. 초기의 혼란 /2. 시지각(視知覺)의 지능(I) /3. 시지각(視知覺)의 지능(II) /4. 물과 물의 합 /5. 현재 속의 과거 /6. 사고의 이미지 /7. 개념은 형체를 취한다 /8. 그림·상징 및 표지 /9. 추상이 아닌 것 /10. 추상의 정제 /11. 땅에 발을 디디고 /12. 순수한 형체를 사용하는 생각 /13. 제자리에 있는 말 /14. 미술과 사고(思考) /15. 이념을 위한 모형 /16. 교육에서의 시각 /[해설] 아른하임의 “시각적 사고”
- Rudolf Arnheim : A Film Theorist, A Psychologist, A Philosopher (한글자료)

## 10-2장 file.30

그 다음 슬라이드에 아른하임이 지은 시각적 사고의 책 소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읽어 보기로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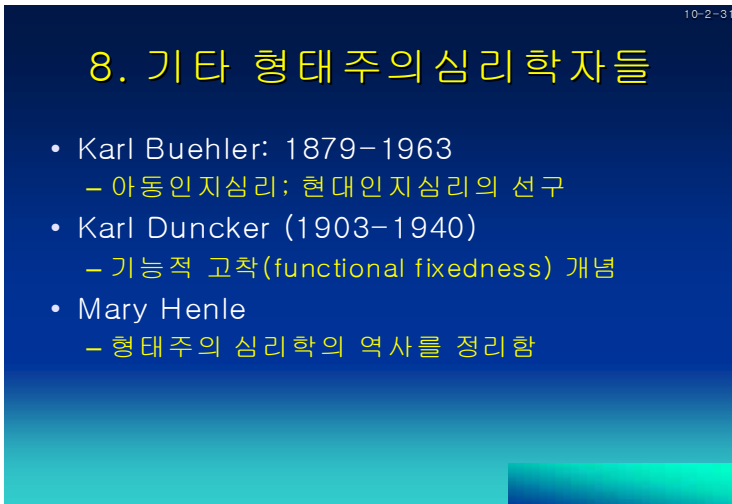
“하버드대학 예술심리학 교수 루돌프 아른하임의 미술의 형태와 기능에 관한 심리학적 탐구를 논한다. 그는 "모든 사고는 미술 또는 어떠한 시각적 경험과 관련된 사고에서도 근본적으로 지각적 성질을 내포하며 그동안 구분되어 오던 시각과 사고, 지각과 추리 간의 분리를 상당한 오해를 초래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이전에 얘기한 스피노자의 기본 개념인데, 우리는 감각, 지각, 사고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하는데 스피노자나 아른하임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지각 내용이 이미 사고에 깊

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시각에 바탕두지 않고는 사고하기 힘들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 책에서 “그는 시각의 기본 과정들조차 추리의 전형적 기제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 주며, 과학의 사고 모형에 따르는 심상 과정을 기술할 뿐 아니라 미술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문제해결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책의 목차가 제시되어 있는데 한번 사이트에서 목차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10-2장 file.31

그 다음에 기타 형태주의 심리학자들에 대하여 이야기됩니다. 칼 블러는 아동인지심리학의 기초를 닦은 사람인데,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초기 단계에서, 그런 의미에서 현대 인지심리학의 선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칼 뉁커는 기능적 고착 개념을 제시 했는데, 이건 심리학 개론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심리학 개론 책의 사고 챕터에서 보면 문제해결적 사고에서 거기에서 기능적 고착이라는 것이 설명이 되는데, 기능적 고착이라는 것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의 특성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현재 기능에 고착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이 이런 기능적 고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칼 뉁커와 칼 블러는 각각 아동인지심리와 문제해결적 사고 심리를 연구해서 현대 인지심리학이 출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었다고 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Mary Henle는 형태주의심리학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심리학사와 지각심리를 같이 공부한 사람으로서 형태주의심리학의 심리학사적 연결을 했죠.

## 게슈탈트심리치료

- *Gestalt Theoretical Psychotherapy* was developed in the 1970s by [Hans-Jürgen P. Walter](#), a German Gestalt psychotherapist and student of [Wolfgang Metzger](#), the eminent representative of German Gestalt psychology of the 'second generation' (visit the [GESTALT ARCHIVE](#) to read selected articles in English).

Rudolf Arnheim, Mary Henle and other Gestalt psychologists and scientists held the point that Gestalt therapy of Fritz Perls and others had nothing in common with Gestalt theory as put forward by Köhler, Koffka, Wertheimer, Lewin, Metzger et al.

- Mary Henle wrote a quite thorough (and biting) article about '[Gestalt psychology and Gestalt therapy](#)',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History of the Behavioral Sciences* 14 (1978).

10-2장 file.32

그 다음에 게슈탈트 심리치료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9. 형태주의심리학의 원리들

- 형태조직화 원리: 교재 322-325 참조
  - figure-ground/ continuity/ proximity/ similarity/ closure
- 다른 형태심리원리
- 1: law of praegnanz 충만성 원리
  - 좋은 형태를 이루어 내려는 생득적 경향이 인간에게 있음 ; closure 현상
  - 후에는 이것을 뇌의 신경메커니즘으로 설명함

10-2장 file.33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형태주의 심리학의 원리들이 다시 나오는데, 형태조직화 원리는 교재 322페이지에서 325페이지에 나와 있고 지난 1회 차에서 그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론 설명을 했습니다. 연속성의 원리, 근접성의 원리, 유사성의 원리, 충만성의 원리 등을 설명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다른 형태의 심리원리를 추가해서 설명하면, 충만성의 원리는 앞에서 1회 차에서 설명했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Law of Pragnanz라는 것은 좋은 형태를 이루어내려는 생득적 경향이 인간에게 있고, 이것이 앞에 지난 1회 차 끝에 그림으로 원이 포개져 있을 때 또는 사각형이 포개져 있을 때, 포개져있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

부족한 것을 단아서 완벽한 전체로 지각한다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이것이 후에 뇌신경적 메카니즘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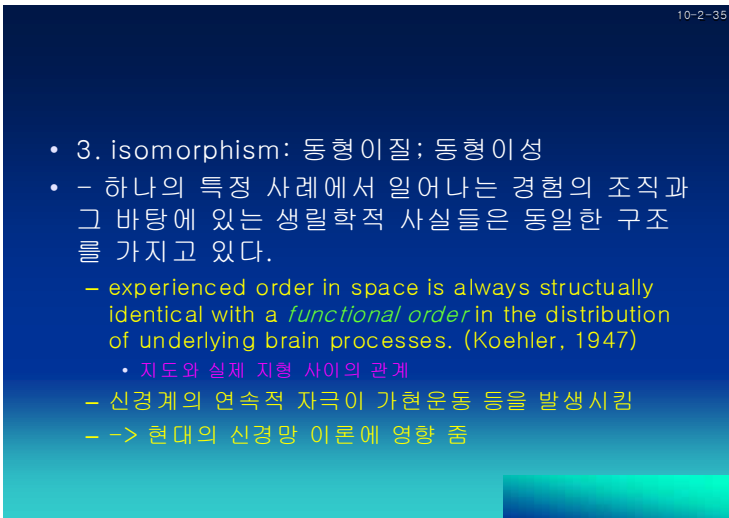
10-2-34

- 2: Zeigarnik Effect
  - Lewin 제자인 Bluma V. Zeigarnik이 발견
  - 에피소드: 웨이터의 기억과 망각
  - 완결되지 않은 과제는 더 잘 기억함
    - (시험시간에 풀지 못한 문제는 풀 문제보다 더 기억이 잘됨)

10-2강 file.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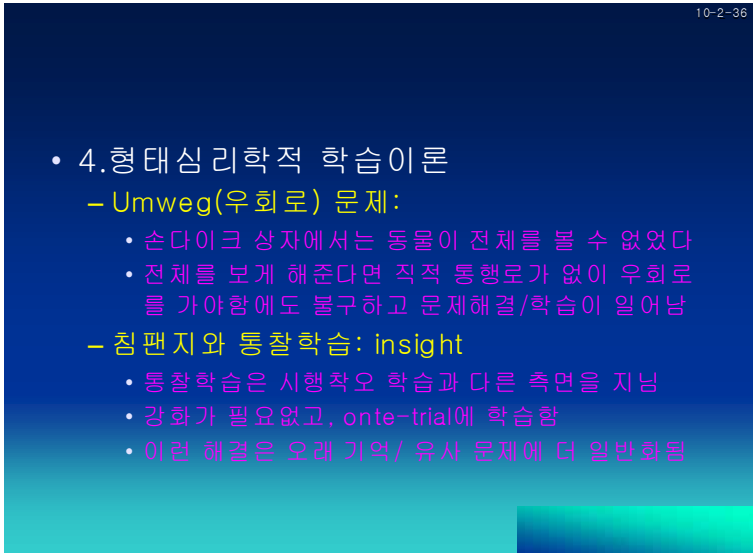
그 다음에 Zeigarnik Effect는 레빈의 제자인 자이가닉 등이 발견한 것인데, 레빈과 자이가닉 등이 같이 갔던 레스토랑에서 웨이터가 어느 테이블에서 무슨 주문을 했는지 완벽하게 다 기억하는데 그 식사가 다 끝나고 다시 물어보면 완전히 잊어버렸더라. 그러니까 일하기 위해서는 다 기억하지만 일이 다 끝나면 완전히 잊어버렸더라는 사실을 가지고 연구한 사실인데, 그래서 이미 완결된 과제는 잘 기억을 못하지만, 완결되지 않은 과제는 더 잘 기억한다. 그러니까 시험시간에 풀지 못한 문제는 풀어낸 문제보다 더 잘 기억하는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 잘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완결되지 않은 과제는 더 잘 기억된다.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고 특별한 맥락이 적용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음 슬라이드



10-2강 file.35

Isomorphism 동형 이질, (책에는 동형 이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의 특정 사례에서 일어나는 경험의 조직 구조하고 그 바탕에 있는 생리학적 사실들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이죠. 이 Isomorphism 개념은 지각심리와 인지심리에서 이따금 나오는 개념이니까 심리학 용어로써 기본적으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책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10-2강 file.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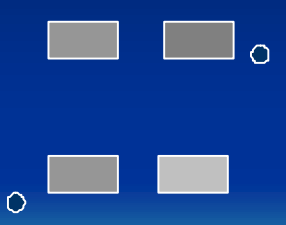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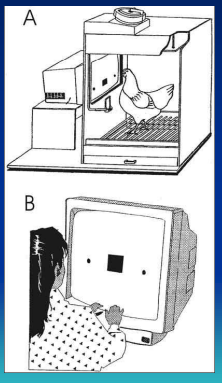
형태심리학적 학습이론인데 침팬지와 통찰 학습에서 윌러가 발견한 통찰학습은 시행착오 학습과 다른 측면을 지니고 강화가 필요 없고 일회 시행에 학습되고 이러한 해결은 오래 기억되고 유사한 문제에도 일반화 된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우회로 문제에서 Thorndike 상자에서는 동물이 전체 미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전체를 보게 해준다면, 직접 통행로가 없이 우회로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발견해서 통찰적 학습, 통찰적 사고, 일회적 학습이 일어남을 보여준 것이 형태심리학 입장을 지지하는 연구입니다.

10-2-37

- transposition learning  
- (관계 학습)

10-2장 file.37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transpositional 관계 학습인데, 이거는 - 다음 시간에 신행동주의에서 - 설명을 더 할 것인데, 닭에게 더 어두운 쪽을 쪼면 먹이를 주게 했을 때, 사실은 닭은 학습하는 것이 어두운 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쪼는 학습을 했는데 나중에 위치를 바꿔 놓으면 전혀 학습 효과가 없느냐 하면 학습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어도 [관계]를 학습해서 학습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은 행동주의심리학 입장에 반격을 가하는 것인데 이 내용은 다음 신행동주의 때 설명이 될 것입니다.

10-2-38

## 형태주의 심리학과 사고과정

- productive thinking
  - 문제해결적 사고는 top-down 식이어야
  - 날개 자극-반응 학습으로는 안됨
  - 원리를 이해해야
  - 전체를 파악해야
  - 문제는 불균형상태를 일으키고 이것이 force로 작용하여 문제 해결함
  - → 인지부조화 이론에 영향
  - → 인지심리학에 영향

10-2장 file.38

그 다음에 형태주의 심리학과 사고 과정이라는 주제에서 Productive Thinking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해결적 사고는 자료 중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중심적이어야 하고 낯개 [자극-반응] 연결로는 학습 되는 것이 아니고, 원리를 이해하고 전체를 파악해야 문제 해결이 된다는 Productive Thinking, 즉 생산적 사고라는 형태주의심리학자들의 연구가 사회심리학의 인지부조화에 영향을 주고 인지심리학에 영향을 줬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2-39

## 10. 형태주의 심리학의 종합

- 형태주의 심리학이 미국에 자리잡음
- 교육학, 사회과학(인류학 등), 정신병학
- 그러나 완벽한 성공한 문제해결을 주는 이론 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관점으로 인식됨
- 여러 분야에 확산됨으로써 독특성이 약화됨, 작은 범위로 수용되었지, 대규모적 기본적 심리학 이론체계, 움직임이 못됨
- 형태주의 영향받은 심리철학 발전됨
  - Wittgenstein, Buehler
- 지각심리, 사회심리 기초형성, 발전에 주 영향줌
- 학습심리, 발달심리, 산업심리 등에 영향줌

10-2장 file.39

형태주의 심리학을 종합하자면, 형태주의 심리학이 점차 미국에 자리를 잡게 되고 교육학이나 사회과학, 정신병학에까지 퍼져나갔는데, 그러나 형태심리학은 완벽한 문제해결을 주는 이론체계, 학파가 아니라 하나의 [관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분야에 확산됨으로써 그 독특성이 약화가 되고 작은 범위로 수용됐지, 대규모적 기본적 심리학 이론 체계로 그런 식의 학파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형태주의 심리학에 영향을 받은 비트겐슈타인 등의 심리철학이 있기는 하지만요. 형태심리학은 학습심리, 발달심리, 산업심리 등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 독일 합리론의 전통과 생리학, 물리학을 심리학에 연결
- 독일의 Nazi 정권의 득세와 유대인이 박해만 없었다면, 독일 및 세계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는 학파로 발전하였을 터임
- 형태주의심리학의 3인방 학자들이 미국에 이주하여 학부만 있는 대학, 여자대학에 주로 있지 않았다면 더 많은 대학원생들을 교육하여 더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임
- 이러한 장애와, 언어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형태주의 영향은 지속, 확산되고 결국 인지심리학의 형성을 가능하게 함.
- 현대 심리학에서 지각심리의 연구가 자연과학적이고 강력한 분야가 된 기반임
- 1960년대의 인지심리학의 대두의 바탕이 됨

10-2장 file.40

다시 한 번 정리하는데, 형태심리학은 독일 합리론의 전통과 생리학 물리학을 심리학에 연결한 그런 공헌이 있고 독일 나치 정권의 득세와 유대인 박해만 없었다면 독일 및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학파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형태주의 심리학의 3인방 학자들이 미국에 이주해서, 그들이 좋은 대학의 교수가 되지 못하고, 학부만 있는 대학에 있었지 않고 (그 당시 경제 공황으로 취직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지 않고 좋은 대학에 갔더라면 더 많은 대학원생들을 가르쳐서 더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장애와 독일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겪는 언어장애에도 불구하고 형태주의 심리학의 영향은 지속 확산 되고 결국 인지심리학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지각 심리학의 연구가 자연과학적이고 강력한 기반을 형태심리학이 마련해주고 다시 한 번 인지 심리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 재정리: 영향과 비판

- 형태주의 심리학의 공헌과 의의
- 1) 심리현상에서의 상호작용과 맥락요소의 중요성 부각시켰다.
- 2)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 3) 감각과 지각의 범위를 넓혀, 지각 심리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 4) 후에 인지심리학에 영향을 미쳤다.

10-2장 file.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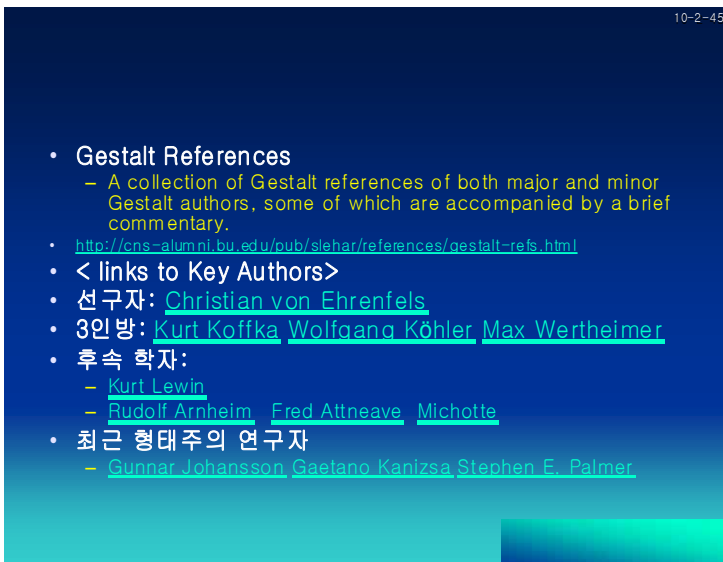


그 다음 재정리 영향과 비판 슬라이드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 한계점까지는 각자 살펴보시면서 형태심리학에 대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0-2장 file.44

그 다음 참고 자료가 여러 제시되어 있는데, 참고자료에서 참고 문헌들, 사이트들, 선구자들 후속 학자들, 최근 형태주의 연구자들이 열거되어 있고,



10-2장 file.45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참고자료로 게슈탈트 이론이 나오고

<http://www.gestalttheory.net/archive/>

- [Gestalt and Computers](#) by Rudolf ARNHEIM (1999)
- [Psychological Psychology and Experimental Psychopathology](#) by Junius F. BROWN (1937)
- [Attention, Emotion, and Striving](#) by Kurt DUNKER (1947/2)
- [Attention and Perceptual Structure](#) by Kurt GOLDS TEIN and Martin SCHEERER (1941)
- [Gestalt Psychology and Gestalt Therapy](#) by Mary HENLE (1975)
- [Some Aspects of the Phenomenology of the Percept](#) by Mary HENLE (1962)
- [The Unity of the Senses](#) by Erich M. von HORNBOSEL (1927)
- [Attention and Perception \(Chapter 8: Why Psychology?\)](#) by Kurt KOFFKA (1939)
- [The Gestalt Approach](#) by Wolfgang KÖHLER
- [Erich's \*Schein\* problem](#), 1929; translated by Erich GOLDMEYER, 1971
- [A Case of Manic with the Social Implications](#) by Erwin LEVY (1936)
- [Some Aspects of the Schizoanalytic Form of Disintegration](#) by Erwin LEVY (1943)
- [A Dynamic Theory of Disintegration](#) (Chapter VIII: Survey of the Experimental Investigations) by Kurt LEWIN (1935)
- [The Role of the Social Field in Psychotherapy](#) by Abraham S. LUCHINS (1948)
- [The Schizoanalytic Approach to Disintegration](#) by Abraham S. LUCHINS & Edith H. LUCHINS (1959)
- [The Schizoanalytic Approach to Disintegration](#) by Abraham S. LUCHINS & Edith H. LUCHINS (1997)
- [The Schizoanalytic Approach to Disintegration](#) by Abraham S. LUCHINS (1997)
- With an excerpt from WERTHEIMER'S Seminars and an additional comment, by Daniel J. LUCHINS
- [Disintegration in Gestalt Theory: Comparison of Wertheimer's and Kohler's Concepts](#) by Abraham S. LUCHINS & Edith H. LUCHINS (1999)
- [A Lewinian Toponomy of Psychiatric Disintegration](#) by Matthew MABAUM (1999)
- [Disintegration in the Visual Percept](#) by Wolfgang METZGER (1928)
- [The Developmental-Perceptual Basis of Gestalt Change Mechanisms](#) by Wolfgang METZGER (1969)
- [Gestalt Theory and Gestalt Therapy](#) by Lewis W. GRANDT and Wolfgang METZGER (1969)
- [The Schools of Psychology and Gestalt](#) by Wolfgang METZGER (1972)
- [Gestalt Theory and Gestalt Therapy](#) by Wolfgang METZGER (1974)
- [A Review of the Developmental-Perceptual Research in Gestalt Theory](#) by Paul THOLEY (1989)
- [Headlines, Headings and Interpretations of Gestalt Psychology](#) by Flornza TOCCAFONDI (2002)
- [Gestalt Therapy, Psychotherapy, and Cognitive Behavior Therapy](#) by Hans-Jürgen WALTER (1999) (translation of 1984 German original version)
- [What is Gestalt Therapy and Gestalt Therapy? \(a 10 page original version\)](#)
- by Hans-Jürgen WALTER (1999) (translation of 1984 German original version)
- [Gestalt Theory](#) by Max WERTHEIMER (1924)
- [Understanding Psychology's Seminal: A Max Wertheimer Seminar Transcript](#)
- [http://www.gestalttheory.net/](#)
- [Gestalt Theory \(1917\) - IS IT STILL ALIVE?](#)

10-2강 file.46

슬라이드 47에도 계속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고

<http://www.gestalttheory.net/archive/>

- [Gestalt and Computers](#) by Rudolf ARNHEIM (1999)
- [Psychological Psychology and Experimental Psychopathology](#) by Junius F. BROWN (1937)
- [Attention, Emotion, and Striving](#) by Kurt DUNKER (1947/2)
- [Attention and Perceptual Structure](#) by Kurt GOLDS TEIN and Martin SCHEERER (1941)
- [Gestalt Psychology and Gestalt Therapy](#) by Mary HENLE (1975)
- [Some Aspects of the Phenomenology of the Percept](#) by Mary HENLE (1962)
- [The Unity of the Senses](#) by Erich M. von HORNBOSEL (1927)
- [Attention and Perception \(Chapter 8: Why Psychology?\)](#) by Kurt KOFFKA (1939)
- [The Gestalt Approach](#) by Wolfgang KÖHLER
- [Erich's \*Schein\* problem](#), 1929; translated by Erich GOLDMEYER, 1971
- [A Case of Manic with the Social Implications](#) by Erwin LEVY (1936)
- [Some Aspects of the Schizoanalytic Form of Disintegration](#) by Erwin LEVY (1943)
- [A Dynamic Theory of Disintegration](#) (Chapter VIII: Survey of the Experimental Investigations) by Kurt LEWIN (1935)
- [The Role of the Social Field in Psychotherapy](#) by Abraham S. LUCHINS (1948)
- [The Schizoanalytic Approach to Disintegration](#) by Abraham S. LUCHINS & Edith H. LUCHINS (1959)
- [The Schizoanalytic Approach to Disintegration](#) by Abraham S. LUCHINS & Edith H. LUCHINS (1997)
- [The Schizoanalytic Approach to Disintegration](#) by Abraham S. LUCHINS (1997)
- With an excerpt from WERTHEIMER'S Seminars and an additional comment, by Daniel J. LUCHINS
- [Disintegration in Gestalt Theory: Comparison of Wertheimer's and Kohler's Concepts](#) by Abraham S. LUCHINS & Edith H. LUCHINS (1999)
- [A Lewinian Toponomy of Psychiatric Disintegration](#) by Matthew MABAUM (1999)
- [Disintegration in the Visual Percept](#) by Wolfgang METZGER (1928)
- [The Developmental-Perceptual Basis of Gestalt Change Mechanisms](#) by Wolfgang METZGER (1969)
- [Gestalt Theory and Gestalt Therapy](#) by Lewis W. GRANDT and Wolfgang METZGER (1969)
- [The Schools of Psychology and Gestalt](#) by Wolfgang METZGER (1972)
- [Gestalt Theory and Gestalt Therapy](#) by Wolfgang METZGER (1974)
- [A Review of the Developmental-Perceptual Research in Gestalt Theory](#) by Paul THOLEY (1989)
- [Headlines, Headings and Interpretations of Gestalt Psychology](#) by Flornza TOCCAFONDI (2002)
- [Gestalt Therapy, Psychotherapy, and Cognitive Behavior Therapy](#) by Hans-Jürgen WALTER (1999) (translation of 1984 German original version)
- [What is Gestalt Therapy and Gestalt Therapy? \(a 10 page original version\)](#)
- by Hans-Jürgen WALTER (1999) (translation of 1984 German original version)
- [Gestalt Theory](#) by Max WERTHEIMER (1924)
- [Understanding Psychology's Seminal: A Max Wertheimer Seminar Transcript](#)
- [http://www.gestalttheory.net/](#)
- [Gestalt Theory \(1917\) - IS IT STILL ALIVE?](#)

- Koehler: Gestalt Psychology Today [1]  
Wolfgang Köhler (1959) ;First published in  
American Psychologist, 14, 727-734
- [http://evans-  
experientialism.freewebspace.com/kohler02.h  
tm](http://evans-experientialism.freewebspace.com/kohler02.htm)
- Koffka: Principles of Gestalt Psychology
- [http://evans-  
experientialism.freewebspace.com/koffka.htm](http://evans-experientialism.freewebspace.com/koffka.htm)

10-2강 file.47

슬라이드 48에서도 또 참고자료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시간이 나는 분들은 링크에 들어가서 보시고 형태주의 심리학에 대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0주차 1회 및 2회 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에서는 형태심리학의 전반적인 발전과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주 11주차에서는 이전 주에서 설명한 행동주의 심리학이 이러한 형태주의심리학과 대립되면서 1930년대 50년대 어떤 형태로 발전되었는가를 [신행동주의심리학] 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